



구매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 효과

비자코리아 · 하나은행 · 한미은행 공동 추진, 이달 서비스 개시

데이콤은 최근 비자코리아, 하나은행, 한미은행과 함께 기업간 비즈니스 사이트인 '비즈니스 몰'을 개설하고 지난 한달간의 시범서비스를 거쳐 이달부터 기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서비스에 나선다. 데이콤 '비즈니스 몰'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국 내 기업간 전자상거래 시장은 2005년까지 전체 전자상거래 시장의 86%인 8조2천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가운데 데이콤과 비자코리아 등 금융 3사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비즈니스 몰'은 일반 개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쇼핑몰과는 달리 기업을 주 고객으로 삼고 있다.

즉 기업간 상품주문, 대금결제, 배송 등 전자상거래의 모든 과정을 일괄 처리해 주는 '기업간 전자상거래 포털서비스'로 기업간 거래에 따른 대금결제가 비자의 '구매카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구매카드는 VISA가 '비즈니스 몰'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물품 납품대금 결제전용 카드이다.

특히 '비즈니스 몰'은 싱가포르 정부와 비자가 함께 구축한 싱가포르 커머스 익스체인지(Commerce Exchange) 허브 등 전세계 기업간 전자상거래

몰과 연계됨으로써, 국내 기업의 수출 활로를 모색하는 동시에 한국 기업이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경쟁력을 선점하는 측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자코리아의 김영중 사장은 "비즈니스 몰'을 통한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는 기존의 불필요한 구매절차를 간소화하여 구매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구매카드' 도입을 통한 거래투명성 보장으로 공정과세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뿐 아니라 해외 인터넷 몰과의 연계를 통한 국내기업의 수출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물류 및 마케팅 비용의 개선

'비즈니스 몰'은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기업간 거래에 따른 모든 단계를 지원해 줌으로써 영업조직이나 판매망 유

